문화특집

프로경기의 대중문화 정착기능과 영향

사회적 의미 상실한 스포츠의 방향

1980년 한해동안 당시 우리나라 스포츠의 요람이라 할 수 있던 서울운동장,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등 주요 3개 경기장을 찾은 총관중수는 약 2백90만명 정도. 종목별로 보면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고교야구에 2백만명정도의 관중이 집중됐고, 이밖에 축구에 약45만명, 농구에 약25만명의 입장객 구성을 보였다.

이러한 당시 고교야구의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가 81년말 태동, 이듬해 정식 출범을 하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 함께 축구와 씨름이 연이어 프로화하면서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프로시대의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프로야구는 인기를 거듭하며 지난해 정규시즌 총입장객 3백91만여명, 포스트시즌 입장객 93만여명 등 이젠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이에 뒤지지만 프로축구 또한 지난해 총관중 1백23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씨름, 복싱, 골프등 각종 프로종목과 농구, 배구 등 세미프로화된 스포츠가 국민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스포츠의 정착은 국민들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스포츠를 관람하고 즐기며 기업은 기업대로 PR수단으로 스포츠팀을 창단,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맞아 떨어지며 이뤄낸 결과다.

아마도 이러한 국민적인 스포츠에 대한 무한한 욕구나 기업들의 한층 높아진 관심 등을 종합해 볼때, 농구, 배구등 여타 종목들의 프로화 여건은 높다.

이제 10여년간의 프로스포츠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간 이들 프로를 중심으로한 스포츠문화와 우리의 생활패의 상호 관계와 영향 등을 한번 되새겨봄직도 하다.

현대스포츠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두 수레바퀴를 굴리며 달리고 있다. 국제 올림픽 운동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아마추어리즘이 아직까지는 세계스포츠의 큰 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레저생활의 확대에 발맞춘 스포츠의 전문화는 필연적으로 프로스포츠를 생성,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 스포츠는 프로화된 일부 인기구기종목과 부가종목이 대중 스포츠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스포츠에 대한 프로의 침투는 날로 가속화될 전망이며 스포츠의 사회적 의미를 완전히 수정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고향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아마추어리즘은 순진한 아이들의 생각정도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스포츠가 돈을 목적으로 움직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역기능적인 면의 대표적인 형태는 사회적 균형을 혼란시키는 경향을 들 수 있겠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나친 폭력성, 금전 등과 관련된 도박, 속임수 그리고 상대와의 또는 동료 의식을 내세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고교야구의 틀을 바탕으로 생성된 프로야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일부 경기장에서 관중과 선수들의 폭력사태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관중들은 응원하던 팀이 패배, 적대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지난 9일 프로야구팀이 역전패하자 구단버스를 에워싸고 경찰과 대치한 모습

어쩌됐든 스포츠가 건강증진의 수단 이상으로 보다 질높은 삶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중문화로 정착되면 스포츠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쉬운 예로 이제 이는 가정에서도 자녀가 스포츠선수로서의 직업을 택한다고 해서 과거의 절대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제 프로스포츠등 몇몇 스포츠스타는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새로운 사회의 변화속의 '우상'으로까지 떠받들여지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가 미래지향적인 복지사회건설의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튼 프로스포츠의 출범과 함께 대중스포츠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은 스포츠문화는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앞을 했던 정치,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유례없는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한때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비중을 두었고, 정책적인 배려속에 급속도로 융성한 프로스포츠는 '우민정책의 수단'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기도 했다.

스포츠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관단을 무디게 하고 억눌린 국민을 선무(宣撫)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유가 생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제 대중문화로서 우리의 삶속에 깊숙히 파고든 현실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대중스포츠문화의 발전에 다시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장 래 준
〈한국일보 기자〉

자본주의 체제속 상업화 되는 스포츠
건강한 여가문화로 생활속에 정착해야

자본주의 체제속 상업화 되는 스포츠 건강한 여가문화로 생활속에 정착해야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 현실속에서 프로스포츠의 영향력대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가 많아지고 일반의 스포츠문화 참가 확대는 대중스포츠의 출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대중스포츠는 상업 오락의 기능 확대로 인해 '행하는 스포츠' '보는 스포츠' '읽는 스포츠' '듣는 스포츠'로 세분화되어지고 파생적으로 스포츠문화 사업에 관계하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 등 스포츠문화가 경제,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하여 스포츠는 현대 사회의 여러분야에 침투하여 지위, 직업생활, 의복의 스타일, 새로운 대중적 우상, 언어,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영역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가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스포츠의 기능적 측면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의미 있음직한 일이리라 싶다.

우선 스포츠의 올바른 기능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스포츠 참가로 인해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교양과 체력, 정신력의 배양을 들 수 있겠고 사회적으로는 문화의 창달과 사회적 장여의 폭지나친 경쟁에서 야기되는 공격성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다. 1969년 중남미의 엘살비도르와 온두라스 두나라 사이의 과격한 경기장내 폭력충돌로 인하여 폭발된 축구전쟁은 외교적, 통상적 관계까지 확산된 경우로 스포츠로 인한 역기능면을 언급할때면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연, 혈연 또한 '어떻게든 이겨야한다'는 승리지상주의와 물질만능풍조가 스포츠에 만연되며 이의 파급 효과로 상업주의라는 흐름속에 수입이 경기대회의 장소, 시기 및 경기운영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칠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마저도 제2의 부수적 지위로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문화단신

극단 한강, 두작품 한무대에 접근방식의 차이,주제는 같아

극단 한강이 제8회 정기공연으로 '잠적'과 '토템'을 무대에 올린다.(오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혜화동 예술극장 '한마당')

위성신씨에 의해 연출된 잠적과 토템이라는 서로 다른 두 작품은 하나로 묶어져 무대에 올려진다. 잠적은 가리봉동 자취방을 배경으로 해고된 3명의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을 담담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토템은 원시인들이 동굴 안에서 부대끼는 모습을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다. 잠적은 여성적이고 사실주의적 기법을 사용하였고 토템은 힘이 꿈틀거리고 우화적이어서 두 작품이 너무나 상이하지만 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차이가 날뿐 두 작품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하나로 묶어지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 서로에게 나눠주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회를 관객에게 묻고 싶다는 것이 공연기획단의 변이다. ☎831-6031, 743-1266, 766-2240

중국 민족예술단 내한공연 중국 문화의 변화상 소개

주한 중국 대사관과 중국 소수민족 대외 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주)쉽싸 코리아가 주관하는 중국 민족 예술단 내한 공연이 오는 6월 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부로 나눠어 진행되며 1부에서 중국의 장구한 역사, 협과 기(판리장성 뒷배경)를 주제로, 2부에서 중국의 정과 예술 (자금성 뒷배경)을 주제로 독수리춤, 마두금 연주, 노래 더더마 등이 선보인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모습과 변화하는 내용을 소개할 이번 공연은 중국의 소수 민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78-7702

서노문협 문화마당 행사 꽃다지 등 프로그램 다양

서울 노동자 문화예술 단체 협의회(대표 박인배) 산하 노동자 문화예술교육협의가 주최하는 월례문화마당 세상만사 '노래 하나, 기쁨 둘'이 오는 29일 영등포 성문 밖 교회에서 열린다.

3월 '한남', 4월 '청춘'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문화마당 '노래 하나…'에서는 함께하는 노래율동, 부르자 노동가요 30, 조민하의 노래교실, 희망의 노래 '꽃다지'의 노래이야기와 신곡발표, 대중가요의 실상과 건강한 노래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흥을 돋굴 것으로 기대된다.

월례문화마당 세상만사는 대중문화의 상업성 속에 소외되고 식상함을 느끼는 대중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서노문협이 93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꾸미는 무대이다. ☎363-9148

미추, '남사당의 하늘'공연 민중의 전통놀이, 애환 그려

극단 미추가 제7회 정기공연으로 '남사당의 하늘'을 무대에 올린다.(연출 손진책)

'남사당의 하늘'은 유랑예인집단 남사당패의 사랑과 슬픔, 고통과 희망, 갈등과 절망 등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 손대성씨는 남사당패의 생활상과 예술혼을 통해 민중속에 살아 숨쉬는 전통놀이의 예술성과 그 가치를 가늠하고 있다. 또한 풍물, 버나, 살판 등 남사당의 여섯가지 놀이를 재현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가들이 추구해야할 이상에대해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윤문식, 김성녀씨 등 일반인에게 친숙한 연기자들이 출연하여 남사당패의 놀이를 대역없이 재현하며, 이를 위해 8개월동안 선체훈련 및 기예를 연마했다. ☎743-7828, 745-7828 공연일시:6월18일~24일 공연장소:국립극장 대극장

동연, 민중 연대 주최 거리문화제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 한마당
매끄럽지 못한 진행 아쉬움 남기기도

건전한 대학가 문화를 위한 '제1회 거리 문화제, 고황골 주민·학생 한마당'이 지난 21일 등용문 앞 50미터지점에서 열렸다.

동아리 연합회와 총학생회 민중 연대 사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학생처와 총학생회에서 후원한 첫 거리문화제는 우천속에서도 생기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20여분에 걸친 발반의 길놀이로 개막을 알렸고 회기동의 권대중래를 위한 고사 및 무당 굿으로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으며 한층 흥을 돋구었다. 이어 검도부의 본국 기타반에서 로망스 등 클래식 2곡을 연주했으며, 장진호씨 등 회기동 무명가수들의 무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2부를 마친 후 동연 회장 이태석(법학·3)군이 무대에 올라 행사 취지를 간단히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이군은 "언제부터가 경희대 주변이 신촌 다음가는 대표적인 대학 향락가로 변질"됐다고 본교 주변 환경의 유흥가화를 진단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건전한 대학문화, 지역문화를 창달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거리 문화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3부에서는 회랑의 노래 '꽃다지'의 초청공연이 시작되었다. 꽃다지는 '광야에서',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등의 잘 알려진 노래에서부터 '내일의 태양' 등 신곡에 이르기까지 10여곡을 불렀는데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가 공연장을 지배하였다. 공연 도중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성명서 형식의 글이 낭독되고 오월의 노래가 불려졌을땐 처연히 내리는 늦은 봄비와 맞물려 비장미를 자아냈다. 관객들의 앵콜 요청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져 전시로 확대하며 주부 등을 상대로 공개 강좌같은 것을 개최하면 학생과 주민이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시종 관객의 열렬한 환호속에 진행된 이번 거리 문화제는

그러나 치밀한 준비가 부족하여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고황골 주민·학생 한마당이라는 이름에 부합되지 못하고 학생들만의 행사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중석 記者〉

전문강사와 함께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회화 특별강좌를…

영어회화 특별강좌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
가)초급=
A반 08시30분~09시30분 (월~금 주5일 수업)
B반 12시00분~13시00분 (월~금 주5일 수업)
C반 16시40분~17시40분 (월~금 주5일 수업)
D반 17시50분~18시50분 (월~금 주5일 수업)
나)중급Ⅰ=
A반 09시40분~10시40분 (월~금 주5일 수업)
B반 19시00분~20시00분 (월~금 주5일 수업)
다)중급Ⅱ=
C반 10시50분~11시5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정:초급, 중급, 각8주과정
4. 모집인원:각반15명 (선착순마감)
5. 강사:STEVEN A. COLLYER(한국에서 회화강의 7년의 경력을 통한 고강도 훈련, 전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건국대학교 등에서 회화 강의,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수 강 료:
각 과정 8주 130,000원

A.F.K.N. 첨쉬 특강

1. 개강:년중 계속 강의중 (수시접수 수강가능)
2. 강의시간:
가)수첨반=08:30~10:4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아침반은 8주간만 강의하며 20명 미달시는 폐강함. 수강료는 8주에 60,000원)
나)오후반=15:10~16:2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다)저녁반=16:30~17:4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3. 강사:강홍식선생(한국외국어대학교 졸, 현 World News영어첨쉬 청취비결 Series Columnist,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A.F.K.N. 청쉬 전임강사)
4. 강의내용:Advanced Course:완벽 청취력의 Final Course, 결정적인 발음원리 33가지 요약 정리, 전날 A.P. News, Basic훈련방법인 Blank Fill-in외에 가장 강도 높은 Full Dictation및 Summary훈련, Topic별 어휘정리 및 청취비결 수첩 Print제공
5. 수강대상자:최고급 수준의 청취, 회화, 어휘 독해력을 원하시는 분, Listening과 발음으로 고민하시는 분
6. 수강료:1개월 단위 35,000원

영어청취 특별강좌 (TOEFL L/C, TOEIC L/C)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A반(속달과정)=09시00분~10시10분(월~금 주5만수업) B반(속달과정)=10시20분~11시30분(월~금 주5일 수업) C반(속달과정)=13시00분~14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D반(완성과정)=16시40분~17시50분(월~금 주5일 수업) E반(완성과정)=08시00분~19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A반박준호선생(외대대학원 석사, 전 시사영어사 TOEIC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영어청취 전임강사)
6. 강의내용:TOEFL/TOEIC L/C에 가장 필요한 발음원리 60가지 정리, L/C실 회화에 꼭 필요한 2word verbs정리, 어휘→리딩→숙문→독문→복잡한 문장의 단계별 청취훈련
7. 강의대상:기업체 취업대상자, 유학준비생, 영어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
8. 교 재:L/C practice script(당일 배포), TOEFL/TOEIC L/C기출문제, V.O.A. News TOEFL/TOEIC L/C 고득점 전략 습득
9. 수 강 료:8주 60,000원

영작문 특별강좌 (취업준비,유학준비,국가고시준비,대학원준비)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10시00분~11시30분(월,수,금 주3일 하루90분씩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2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이영옥선생(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대기업 취업 대비, 유학준비,대학원 진학준비,국가고시 준비
7. 강의내용:8주 80,000원

아카데미 TOEFL (TOEFL시험, 유학준비, 국가고시 준비)

1. 개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가)A반=08시 30분~09시 30분(월~금 주5일 수업) 나)B반=09시 40분~10시 40분(월~금 주 5일 수업)
3. 과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50명(선착순 마감)
5. 강사:이상출선생(경희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석사, 전 현대시사외국어학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TOEFL 시험 대비, 유학준비, 국가고시 준비, 취업준비, 대학원진학 준비
7. 수강료:8주 40,000원

영상일본어 특별강좌 (독해, 문법, 회화)

1. 개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가)A반=09시 00분~10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나)B반=18시 00분~19시 10분(월~금 주5일 수업)
3. 과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선착순 마감)
5. 강사:송금순 선생(일본 동지사대학 일문과 졸업, 현대건설 사원연수 일본어 강사, 전 시사 동역 학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일본어 전임강사)
6. 강의내용:일본어 문법 및 철저한 발음 훈련과 기초 회화 완성, Lab을 이용한 듣기 훈련(정확한 동경 발음), 문법의 실용회화로서의 효과적인 응용 훈련
7. 수강료:8주 60,000원

러시아어 특별강좌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
10시50분~11시5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2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OLEG KIM 선생 (제 러시아 교포, 러시아 청년대학 졸업)
6. 강의내용:
정확한 발음, 문법, 독해력 회화능력을 배양
7. 수 강 료:8주 60,000원

중국어 특별강좌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
가)A반=08시30분~09시30분 (월~금 주5일 수업)
나)B반=16시30분~17시3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 (선착순 마감)
5. 강 사:이 화 선생 (중화민국 연변대학교 졸업,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
정확한 발음, 문법, 독해력 회화능력을 배양
7. 교 재:미정
8. 수 강 료:8주 60,000원

언어연구원 (접수기간:6월 15일~30일 접수 및 문의:☎961-0081~2)